

동북아 물류 중심 “한국으로...”

네덜란드 · 싱가포르 벤치마킹 ... 중국경제 부상 맞춰 재도약 기틀

최근 중국 등 동북아경제권이 부상함에 따라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물류중심 기지화에 성공해 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비중이 현재 15%에서 20-25%로 증가하고 연간 30억-40억달러(4조-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인 물류 중심국가인 네덜란드 · 싱가폴은 물류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우위와 개방성을 바탕으로 국가생존전략으로서의 물류 중심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항만 · 공항 등 물류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물류정보화를 추진하는 등 필요조건을 착실히 이행했고, 특히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을 유럽1위, 세계5위의 유럽 최고항만으로 육성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스키폴 공항을 건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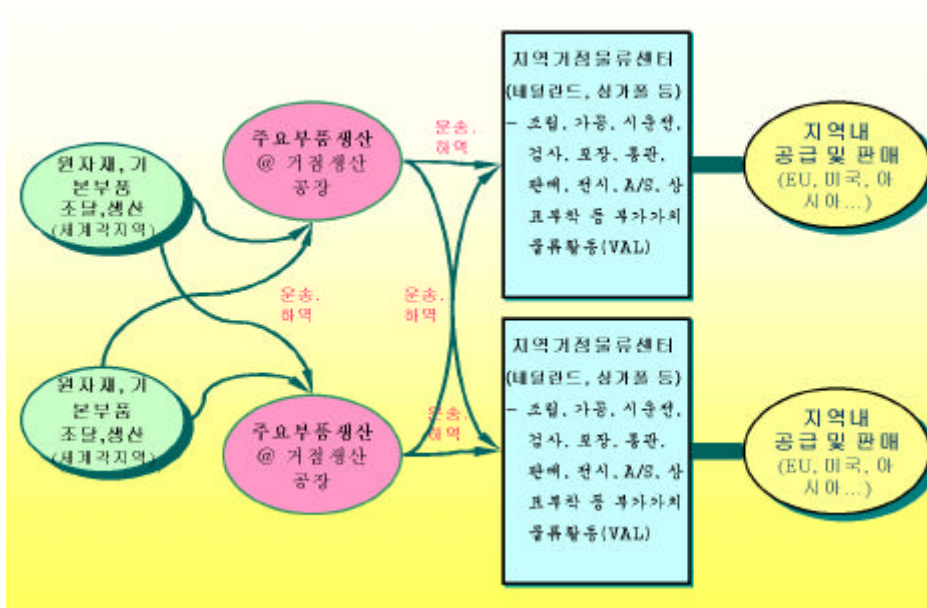
싱가폴은 GDP 900억달러의 소국경제인데도 불구하고 대형공항 · 항만 등 인프라를 확충해 컨테이너 처리능력 세계1위를 점하고 있다. 또 물류정보화 추진으로 항공화물 통관시간이 종전 2-3일에서 15분으로 크게 단축해 물류 처리비용을 최소화했다.

네덜란드는 기업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세계화 기업의 물류기지 유치전략을 통해 유럽지역에 물류센터를 설치한 미국 · 아시아계 955개 기업 중 541개를 유치했고, 싱가폴에는 1000여개의 국제물류기업이 활동중이다.

양국은 또 정치안정, 유연한 노동문화, 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 등 국가시스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물류중심지화를 뒷받침했다.

한국도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종의 원칙에 따라 거점 항만 · 공항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물류정보화 등 물류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기업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세계화 기업의 물류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Supply Chain



한국은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으로 세계경제에서 동북아권 비중이 확대되고, 역내 교역·경제협력 가속화 추세에서 중국경제 부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에 맞춰 증가하는 물동량·비즈니스 수요를 유치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또 수출주도·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잠재적 위기의식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일본·중국이라는 Nutcracker 사이에 끼인 [호두의 운명]에서 제조업 중심 발전전략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 첨단산업육성, 전통산업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 발전 등이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물류비용의 세계경쟁력이 턱없이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물류비는 GDP 대비 미국의 1.6배 수준으로 높아 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27 >